

* 팀NO : 2019- 047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일 본 (3 팀) 공 항 :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동 경

3. 사역기간 : 2019년 12월 5 일(목) ~ 12월 10 일(화) / (5)박(6)일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한

지

이성영 9/8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E-Mail
1	팀장	권사	김 하 경 Kim Ha Kyung	2	0	89-928					
2	총무	안집	우 종 호 Woo Jong Ho	5	0	85-299					
3	서기	집사	김 윤 세 Kim Yoon Sei	5		95-582					
4	회계	권사	이 순 기 Lee Soon Kee	5	0	91-52					
5	의료	권사	김 영 자 Kim Young Ja	1	0	81-855					
6	이런이 총괄	권사	김 종 녀 Kim Jong Ryu	14	0	89-1159					
7	봉사	권사	변 인 원 Byun In Won	3	0	99-364					
8	선교	권사	최 난 영 Choi Nan Young	1	0	86-838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9/1
황수만

9/1
정재영

은혜부터 시작될 원본 선교! 이 원본은 어떤 나라일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종교가 있느냐 마는 나라는 신이 임하신 곳에 있었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것들은 선교관과도 연결하고 함께 된 것일 것이다. 이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불쌍한 거주의 조국적인 나라 일본. 천주교회가 선교를 결심하고 일본에 단기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하나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음악 선교하는 말을 들은 성령 가톨릭과 결심하고 신령 했다. 그리 결심하는 못하지만 뒤 특별한 것이 있었으니 그 동안 꾸준히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해왔는데 그 마음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찬양한다면 그것 또한 일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선교를 결심하고 준비를 했다. 다음 선교 때보다 시간으로 부족하고 여러가지 준비하는 나에게 마음에 안들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준비하였다.

힘이 구성되기까지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있었으나 그것은 그것이고 이제 힘이 있는 구성원의 힘 훈련은 사랑하고 서로간에 주님 안에서 마음을 맞추어 갔다. 아시는대로 있었지만 처음 원본으로 만나서 우리에 모든 것은 내버려두고 그저 주님 나라에 찬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이 예배하고 기쁘고 티끌하고 그 티끌한 것은 전정하여 무엇이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든 준비하고 누가 무엇이든 할 것인가를 나누고 실행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보람을 갖추고 사랑의 리나 십자가를 나누고 일본을 향해 떠나는 것이 되고 일본으로 갔다.

일본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돈된 나라였다. 2009년 전에 다녔다시피 처음가는 곳이었다. 그때는 일본의 상황이 다해 전혀 특색이 이번에는 조금 안다 보니 마음이 간절했다. 이 선한 일본에 주님의 말씀이 흥 전해지기를... 문화에 조응하여 목사님이 나와서 만나 주셨다. 차로 유령을 몰고오셔서 (20리) 데려다 주셨다. 가면서 일본의 현상은 들리니 일본은 정말 특이한 나라인 듯하다. 아니 듯할 것이 아니고 아주 하나씩은 일본 전체적으로 들리게 만드는 나라였다. 정말 이곳 아래가면 여러로 관련된 것이 다같이 되어 세워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도 있었다. 주님을 우리는 함께 일본은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준비한 것을 통해서도 오랑현(현)에서 사경, 100여사경을 했다. 다음 준비한 것은 다같이 우리 주님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다음 선교는 좀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되바라.

2019. 12. 10 일본 3개 우글호

< 선교 소감문 >

일본 3월 이슬기 원사

5박 6일의 짧은 시간 긴 세월이었습니다.

역상이 가득한 나라 일본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노망전도의 기쁨이 있었고, (교회 주변) 복음전도 때기도 많이 호응하여 우리 기쁨이었습니다.

2월 사흘 분투하기 속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보며, 온 2월의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저런 복음에 나쁜 마음이 있었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좁은 터에 전도인이 (20-30명) 이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어 1, 2부로 나누어 예배드리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분들의 형제애 복수심, 사모심에 헌신을 통해 주제인들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 등을 위하여 가서는 마음이 너무나 간증감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단점이 그들에게 신앙의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마음을 맞춘 장로가(교회) 형제들이 같이 북돋아주는 사람들의 많은 도움에 마음이 아꼈습니다.

우리들이 자유롭게 큰 교회에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큰 축복인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 땅에 주님의 복음이 평안하게 전파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단기선교 소개문

일본교회 기금 용서 감사

오랫만에 상봉하는 단기선교다. 뽕나무에 제각각인 것
이런저런 풍요함을 알지 못했지만 성경의 노후를 기원하여
환영에 임했다. 우리들의 주선사업은 환영에 앞선 예나가서
사랑의 인정을 통한 어난이바람을 보내는 것. 어머니들의 원리실습 등
새로운 제도를 통한 신앙의 길. 건강자식생활 등 악기연주회, 장로
인정회, 율동회, 노년자회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었다.
때로는 매끄럽지 못한 진행도 있었지만 못마땅한 것은 주님 앞에서
그런 사업을 바라보면서 5백6십의 사업의 진정성을 인정하였다.

일본인이 1억2천7백만 원의 예산과 인건비 1% (총자본 0.5%)
밖에 안되는 이상한(?) 나라. 비가 5백6십의 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내가 본 일본사람들은 예의바른 친절하다.
뽕나무의 어둠속에서는 무언가를 하는 듯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는 전도지침을 주며 감사하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일본선을 가까운 한국사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

소 감 문

소 속 : 일본3팀 (김하경팀장)

이 름 : 김종녀

몇 년 전부터 막연히 일본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 1%도 안 되는 일본선교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며, 우리나라와의 국민적 갈등이 있는 국가이다 보니 선교의 발걸음이 늦어진 것 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와 거리로는 가장 가까운 일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 하라는 말씀이 저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의 초점은 한국 사람으로 일본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주재원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의 형편으로는 마땅히 신앙생활을 할 만한 교회도 없었으면 있다고 해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교회여서 한번 방문하고는 떠나는 형편이었습니다. 현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지금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며 준비하고 있는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과 현재 성도들의 열정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숙소와 초청 잔치등에 필요한 장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팀원 한분한분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역비나 사역의 전반적인 것을 논의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 감 문

소 속 : 일본3팀 (김하경팀장)

이 름 : 김종녀

현지사역전반에 대하여

사역 첫날은 내일의 양로원 사역에 대한 준비 음악사역연습과 전반적인 사역준비를 하였습니다.

둘째날, 양로원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증거 하였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양로원으로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 하였습니다. 그중에 한국교표이신 어르신 한분이 다음 주에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시며, 너무나 기뻐하며 옆에 계신 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무표정한 어르신의 모습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셋째날, 어린이 사역에는 부자와 나사로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하고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설명을 하며, 카드만들기를 하며 교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코파이 케익에 작은 초를 켜고 예수님 생일날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증거 하였습니다. 2부에는 정성껏 준비한 한국음식으로 (잡채, 불고기, 약밥등)교제하며 초청 잔치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 같이 즐거워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된 날이었습니다.

넷째날은 교회가 좁아서 예배를 두 번 드렸습니다. 1부는 일본어예배. 2부는 한국어 예배로 드려 질 때에 찬양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다섯째날은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의 어머니들과 전도대상의 어머니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되었습니다. 자녀양육과 외국생활에 대한 어려움 또는 좋은 점을 함께 나누며 공감대를 이루고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하는 이유에 서로 공감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의 발걸음이 예수님이 증거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3팀 3교구 변인원 권사

해마다 축제와 같은 선교를 내년으로 미루고 지내던 어느 날 의도치 않게 일본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일본 도쿄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800만개의 신과 0.4%의 기독교인,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와 얽혀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 하나만으로도 느껴졌던 답답함과 마음의 부담을 안고 떠났던 일본 선교... 우리가 도착한 15평 남짓한 교회 공간은 시설도 미비하고 협소했지만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본당이었고, 주일학교였으며, 식당, 회의실, 목사님 사무실이기도 했다. 요양원 사역, 크리스마스 초청 잔치와 젊은 엄마들과의 소그룹 모임, 축호 전도 등을 진행하면서 이번 선교는 매 순간 나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해주었다. 특히 소그룹 모임에서 젊은 엄마들의 간증을 듣고 나 자신의 어린 신앙을 반성하며 회개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귀한 말씀 전하며 눈물과 기도로 전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학교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 밤새 울었다는 3학년짜리 어린아이,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며 주님께 감사했다는 여성도님, 시간날 때마다 교회 들러 청소하고 가시는 집사님들, 집보다도 교회가 너무 좋다는 어린 학생들을 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께 더욱 강하게 임재하심을 보았으며 이 교회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나의 안일하고 타성에 젖은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었으며 도움을 주려 간 그곳에서 나는 더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 특별히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배려해주신 우리 팀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더 깊이 깨우치게 해주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월 3일 김영자 전사 72주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도쿄 에다가와 사랑의교회
(목) (화) (수)

결혼을 위해 기도 하며 신이 말씀하신 우리 이웃 나라 원수의 나라
우리 나라 우리 국민을 괴롭힌 일본. 한일 정기가 있을 때면 우리가 지켜야
가슴이 편하다 그런데(하나님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다
예수님.)

아가페 선교회를 통해 여러 교수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본이
창조주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땅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계신다. 고기잡는 어부
내드르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많은 고기가 잡히듯 지금 오늘도 말씀 따라 복되하시니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 감사합니다

여.리분 들을 보며 많은 성도들이 구급할 때 같이 모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소감문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일본 땅
6 일간의 선교를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하여
일본을 미워할수만 없는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흑암의 사람들 복음으로 부자인
우리나라가 예수님 한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서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에
역사가 일본 땅에 일어날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을
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구 86-838 최 난 영 권사
(일본 3팀)

백광봉

